

# '당나귀귀' 최고 시청률 경신...현주엽 짠내 나는 '먹방'



'당나귀 귀'가 강력한 공감과 웃음을 선사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9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당나귀 귀' (이하 '당나귀 귀') 7회 2부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6.8%, 전국 기준 6.1%(닐슨 코리아)로 전주 대비 각각 2.4%, 1.8% 상승하며 6%를 재돌파했다.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2주만에 타이 기록을 세워, 강력한 상승세를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요리연구가 심

## 강력한 공감과 웃음 선사...6% 재돌파

영순, 현주엽 감독, 타이거JK의 다채로운 매력과 깊은 팬사랑이 공개돼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현주엽 편에서는 신규 선수 영입을 위해 해외출장을 떠난 현주엽, 박도경 차장,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채성우 팀장 0.4톤에 달하는 걸리버 삼형제가 1만km를 달려, 화제가 됐던 '부르즈 칼리파'급 초밥 먹방을 능가한 싸움이 공룡 먹방을 선보이며 놀라움을 선사했다. 이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마카롱과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일단 100만원의 운전 기사 비용을 아낀 세 사람은 발라노 현지 맛집을 찾아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로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현주엽은 메뉴판의 고기요리를 싸우며 주문했고, 세 사람이 약 20인분에 달하는 고기를 해치우는 공룡 먹방을 선보였다. 현주엽은 식사 내내 "맛있다" "완전 맛집이야" "지금까지 맛집 중에 제일 낫다"고 만족해하면서 "내일도 온다고 예약하고 가"라 농담을 해 웃음을 주었다. 현주엽은 선수들과 잘 어울리질

외국인 선수를 찾기 위해 2주가 넘는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수백킬로로 1만 킬로가 달하는 거리를 직접 운전했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하며 밤을 새우는 모습으로 프로다운 면모를 엿보였다. 이렇듯 열정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맛집을 탐색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며 이어지는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타이거JK 편에서는 소속가수에 대한 타이거JK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와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타이거JK와 윤미래는 '별곡 뮤직'의 신인가수 비비의 첫 데뷔 싱글 앨범 발표를 축하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속 깊은 조연으로 비비를 격정해 주었고, 이에 감동한 비비는 눈물을 쏟았다.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팬들에게 어머니께 받은 반지를 주고 온 타이거JK의 모습을 본 MC들은 '다시 받아야 하지 않냐'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타이거JK는 "어머니도 저러면 저를 더 사랑해 줄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실 거예요"라면서 공연을 보러 와 준 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다고 해 정한 감동을 선사했다. 심영순 편에서는 직원들과 강원도 정선으로 이유회를 떠난 심영순의 소녀 같은 모습이 웃음을 주었다. 이날 심영순은 직원들과 처음으로 떠나는 이유회에 한껏 들떠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하면, 산나물 이매귀 퀴즈를 내면서 소녀처럼 행복해했다. 한우를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심영순이 이근 목욕지에 도착한 직원들은 나물 반찬이 가득한 식탁에 실감을 감추지 못했고, 볶은 고추장 양에 있는 소고기마저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짠내 웃음을 주었다. 이후 식사를 마친 심영순이 "밥값을 해야지"라며 직원들을 데리고 산나물을 캐러 산으로 갔고, 이유회답게 놀기를 희망했던 직원들의 심란한 표정과 산나물을 뜯을 기대에 부푼 심영순이 대비돼 웃음을 자아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방송.

## '이스달 연대기' 장동진 vs 송중기, 드디어 첫 대면 '불꽃 대립'



터 50대까지 동시간대 1위를 차지, 전연령층을 울 길 하며 시선을 끌었다. (유료 플랫폼/전국 기준)닐슨 코리아 제공. '이스달 연대기' 4화에서는 이스달에 입성한 은섬(송중기)이 거대한 문명을 맞닥뜨리고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탄야(김지

람을 정터에 본 작은 께작 안의 닭들처럼 가뉘고 묶어놓고 시키는 거였냐고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우리 씨족들을 구해야 돼. 구하기 전엔 못 떠나. 연방장 산옹을 잡아서 교환할거야"라고 굳은 결심을 밝혔다. 반면, 타곤(장동진)은 아사씨의 제관만이 한다는 울림사(죽기 전의 식)를 해왔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발고로 밝혀져 신성재판에 화부했다. 그러나 이 신성재판 화부는 타곤이 태일하(김유진)를 통해 산옹에게 폭로하라고 계획했던 일. 타곤은 어린 시절 아버지 산옹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엮어진 부자관계를 드러냈다. 신성재판 하루 전날, 타곤은 대제관인 아사론(이도경)을 성 밖에서

은밀하게 만나 용서를 청했고, 아사론은 금과가 담긴 상자를 꺼내며 이스달을 떠나라고 요청했던 터. 하지만 타곤은 "저는 떠나지 않고 니르 하계신, 연맹인들의 원방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라며 설피 미소를 지은 채 두 사람이 모두 사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아침, 타곤은 대간부대와 탄야를 포함한 외한족 포로들을 끌고 인산인해를 이룬 이스달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이스달 성문으로 들어왔던 상태. 이때, 흰산족 제관이 타곤 앞을 가로막고 신성재판을 위해 무장을 풀고서 따르라 전했고, 타곤은 신성재판으로 향했다. 드디어 대진전 불의 방에서 신성재판이 열리고, 무릎을 꿇은 타곤 옆으로 아사론과 제관들이 의식을 진행했던 터. 아사론은 이번 신성재판의 결과에 대해 "잡들지 않는 신 이소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년족의 자제, 타곤에게 신의 영능이 임했습니다"라고 전해 산옹은

경악했고, 이에 타곤은 알 듯 모를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타곤의 죄를 처벌하면 아사론은 연맹인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 타곤을 처벌치 않으면 흰산족의 권위가 무너지는, 두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타곤은 아사론과 밀약을 나눴던 것. 신의 영능이 임한 타곤의 울림사시는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발표한 아사론은 타곤을 신성재판에 올리기 위해 발고했다며 오히려 산옹을 위기에 빠뜨렸다. 더욱이 아사론이 산옹을 신성모독으로 몰면서 대진전에 가두려고 하자 산옹은 단벽(박병은)과 호위진사를 앞세워 도망쳤고, 타곤의 대간부대원들은 도주하는 산옹과 단벽 앞을 가로막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이때 외한족 진사의 분장을 한 비장한 표정의 은섬이 전광석화처럼 등장해 산옹을 붙잡고 산옹은 자신을 구하려 온 것이라 생각하고 은섬의 말에 올라타 숲을 빠져나갔다. 이후 사라진 산옹이 흰산족에 의

해 대진전에 잡혔다고 생각한 단벽은 위명령(연병)을 지키기 위한 군사 동원 명령을 선포했고, 타곤은 자신이 산옹과 담판을 지었다고 나선 가운데 은섬이 산옹을 인질로 잡고 정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외한족 전사복장의 은섬은 산옹의 목에 칼을 겨누고는 "나는 외한의 전사 은섬이다"라며 외한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산옹을 건네주고 대혹벽 아래로 돌아가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그러자 타곤은 "나는 새년족의 자제이며, 산옹 니르하의 아들, 타곤이다. 내가 가까이 칼을 빼려고 널 만나려 한다"라며 무장을 거두고 계단을 올라갔다. 무기를 버리고 올라간 타곤은 긴장한 채 손잡이를 잡으며 몰래 숨겨온 칼에서 쇠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살기가 형형한 얼굴로 변한 은섬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타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두 사람의 격렬한 모습이 엔딩으로 담겨지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 레드벨벳, 새 앨범 타이틀곡은 '짐살라빔'...중독성 예고



걸그룹 레드벨벳이 중독성 넘치는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 '짐살라빔(Zimzalabim)'으로 환상적인 음

악 축제의 서막을 연다. 'The ReVe Festival' (더 리브 페스티벌)로 2019년 다채로운 음악 활동을 예고한 레드벨벳은 오는 19일 오후 6시 멜론, 플로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QQ뮤직, 쿠팡뮤직, 쿠팡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새 미니앨범 'The ReVe Festival' Day 1'의 음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신곡 '짐살라빔

(Zimzalabim)'은 리드미컬한 드럼 연주와 캐치한 신스, 시원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중독성 있는 일렉트로 팝 장르의 곡으로, 화려한 퍼레이드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인상적인 만큼, 음악 팬들의 귀를 완벽하게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8, 9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레드벨벳 공식 계정에서 개최된 영상상을 통해 공개돼 궁금증을 증폭시

킨 단어 '짐살라빔(Zimzalabim)'은 유럽에서 주로 쓰이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으로, 마음 속 깊이 간직해 둔 꿈을 펼쳐보자는 의미다. 또 레드벨벳은 오늘(10일)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네이버 V 레드벨벳 채널 등을 통해 'The ReVe Festival'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트레일러 영상 'Special Invitation: RVF D-10'을 공개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한편 레드벨벳의 새 미니앨범 'The ReVe Festival Day 1'은 6월 19일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음력 5월 9일)



▶**경미** 꿀벌이 온갖 꽃에서 꿀을 빨아 모으듯, 3, 5, 11월생은 토끼, 닭, 말의 마음 안에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점을 본받도록 하라. 미혼자는 서, 남간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인연이니 그, 비, 자 성씨가 있으면 한번 만나볼 것. 외출은 조심함이 좋겠다.



▶**사미** 2, 7, 10월생 운기가 상승하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할 시기다. 모처럼 먼 곳으로의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머리로 식힐 겸 동쪽으로 떠나보라. 해답을 얻어 올 것이다. 만사 신중하게 한다면 평온무사한 날.



▶**유승** 무리한 일인지 알고도 떠맡는 것은 위험하다. 1, 2, 7, 11월생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면 일에서 실패할 염려 있으니 주의할 것. 그, 비, 오, 자 성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일하게 되면 결국 입장만 난처해지니 가려서 받아들여라.



▶**정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일은 서둘러 정하라. 1, 3, 10월생은 일의 매듭이 어려워도 힘을 다하면 풀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때 운이 열린다. 그, 비, 사, 오성씨는 제자리걸음으로 성과를 놓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것.



▶**유미** 그, 자, 천 성씨는 혼자서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려고 하니 상대가 떠나는 격. 1, 8, 9월생은 부린 만큼 거둔다는 것을 음미해보라. 무엇이든 쉽게 빨리 얻으려면 힘겨울 수 있다.



▶**정미** 허황된 생각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4, 11, 12월생은 빨리 제자리 찾아 안주하라. 비, 사, 오 성씨는 노력으로 자신을 빛내야 한다. 남을 돕고 한순간에 일어선다는 안이한 생각은 접어두어라.



▶**정미** 전전 자체가 갖춰지고 한걸음 나가는 기운. 5, 7, 10, 12월생은 너무 강한 행동을 보이지 말라. 그, 오, 자 성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할 것. 구설수 따르게 되니 문제가 생기면 동남쪽 사람과 상의함이 좋겠다.



▶**정미** 그, 그, 자성씨는 소심한 성격은 바뀌 보는 것도 좋겠다. 사업에 큰 도움이 되어 아래사람 거느리는데 장점으로 부각됨을 알 것. 5, 10월생 교육자, 학원관계 업자는 지나친 과로로 건강 이상이 있으니 검진을 받아보고 휴일에 충분히 쉬도록 하라.



▶**유승** 일주일동안 쌓인 피로를 잠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등산계획이나 레저 스포츠로 푸는 게 좋겠다. 4, 9, 12월생은 수면을 적당히 취해야 한다.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할 것.



▶**정미** 우정, 특히 그중에도 이성과의 우정을 맺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록 처음에는 미덕에서라는 동기로 시작해도 1, 2, 7, 11월생은 나중에 큰 손해에 원인이 되게으니 주의하도록 할 것. 비, 오, 자, 흥 성씨는 침착, 냉정하라.



▶**정미** 당신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마음을 비우고 사랑에서 벗어날 것. 1, 5, 9, 10월생은 당분간 마음은 아프겠지만 더 이상 밀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새로운 독에 자신의 물을 채워라. 차차 마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함이 좋을 듯. 금전운은 양호함.



▶**정미** 그, 오, 흥 성씨는 모든 일은 출발이 중요하니 새로운 각오로 임할 때 양, 범, 뱀의 도움을 받겠다. 2, 4, 8월생은 꾸준히 연구할 때 명예 지킬 수 있으니 창작, 예술, 교육계 등 종사자는 안이한 태도를 멀리하라. 오늘은 바닷가보다는 등산이 좋은 날.